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F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Parent's Marital Conflict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Aggression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이지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문혁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h. D. Course : Lee, Jee Hee

Department of Child,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 Moon, Hyuk Ju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f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parent's marital conflict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agg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cluded 245 students of 6th-grade students living in Gyeonggi-do. Each participant completed a child's perception of parent's rearing behavior, a parental conflict scale, and a children's aggression scale. Data was analyzed using via the following methods: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nbach's a.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determined that a there we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existed with regard to between the father's rearing behavior, the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the children's aggression. This study showed indicated that the father's rearing behavior, rather than the parent's marital conflict, was the more influential on the with regard to children's aggression.

주제어(Key Words): 아버지 양육행동(f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부부갈등(parent's marital conflict), 공격성(aggression).

I. 서론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McCord, 1988; Olweus, 1991)되며 점점 저연령화, 집단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아동의 공격성은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최고에 달하며(Anderson, Russell, & Schumm, 1983),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장지순, 1999). 뿐만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성인기에도 공격적이며 다양한 폭력 및 범죄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dley & Graham, 1993). 더욱이 최근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수업중에 여교사를 폭행하고(경인일보, 2006. 6. 20),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연합뉴스, 2006. 5. 3)이 발생하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공격적인 행동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정신분석적 이론, 정보처리 이론, 사회학습 이론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공격성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학습하는데, 부모는 아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적 모델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매일 볼 수 있으며 다른 매체들에서 묘사되는 공격행동보다 더욱 생생하게 직접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성과 가정 환경을 관련지은 연구 결과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어렸을 때의 경험이 중요하며, 부모의 위치, 기능 및 역할이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정원식, 1975).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동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격성을 습득하게 되며 습관화하게 된다(Eron, 1980). 이에 아동기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며 학령기에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 환경이 가정이고 어린 시절을 대부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종단적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또는 성인의 공격성은 생후 초기의 공격적 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린 시기 동안의 부모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ubin, Stewart, & Chen, 1995; Tremblay, 2000). 특히 부모의 배척, 신체적 처벌, 위협, 강압적인 명령을 비롯하여 거부, 무관심, 심리적인 통제 및 자녀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

하지 않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켰다(Barber, 1996; Eron, 1982;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특히 거부적인 부모는 권위 중심의 훈육방법을 일관성 없게 사용하며,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인 욕구를 좌절시켜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란 아동은 또래 집단 속에 속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관계의 조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향을 나타나게 된다(Baumrind, 1967; Eron, 1982). 반면 부모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이며 아동에게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온정적인 양육을 할 경우 또래에게 공격적이지 않았고 부모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어 공격성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공격성과의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Bigner(1977)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비애정적이고 거부적이면 공격성의 모델로 작용되어, 형제나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의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일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고(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일 때 공격적 행동 등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정문자, 김문정, 2004). 특히 박혜경(2002)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야기하며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통제에 반발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행동임을 보고하고 있다(박성연, 2002). 즉,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버지의 자녀 양육행동은 어머니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부관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와 아동의 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약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문제 이면에는 부모의 결혼생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Framo, 1975),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관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Cummings, 1994; 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Katz & Gottman, 1993). 즉 부부간의 갈등은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이것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더 통제적이며 덜 애정적이고(강차연, 장연집, 1999) 아동의 공격성, 과다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9). 특히 부부갈등을 아동이 심각하게 지각하게 되면 부모-자녀 관계를 수용적이라기보다 거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이때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은 더 높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부모의 문제가 자신 때문이라는 죄의식과 비현실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며 부모의 분노에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자신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고 다시 우울이 되고 다른 환경에 대해 표현될 때는 대체된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전반적인 가정불화보다 아동의 적응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적응장애 중 특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 Holden & Ritchie, 1991). 더불어 공격성은 직접 경험뿐 아니라 목격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도 아동에게 영향을 주므로(정준미, 1998), 부모가 상대 배우자를 언어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자녀는 공격적이 될 위험성이 높다(원지영, 1999; Grych & Fincham, 1990; Kalmuss, 1984; Rosenbaum & O'Leary, 1981).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폭력을 관찰한 아동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동보다 공격성과 더 밀접한 관련있다고 보고하였다(노치영, 1988).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해 볼 때, 아동기에 가정에서 부부간의 언어적·신체적 갈등을 많이 목격한 아동은 공격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부부관계갈등은 자녀들에게 분노의 감정표출, 무관심, 거부 등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야기하고(Holden & Ritchie, 1991), 이는 아동의 공격성 및 비행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Wolfe, 1985). 즉, 부모의 부부갈등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동의 성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차이가 없다는 이순복(1993)의 연구에 반해 이병래(199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남아에게 보다 거부적, 권위적이고 여아에게 보다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여아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문경주, 오경자, 2002; 이정숙, 1997) 남자는 여아에 비해 부모를 더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경선, 심희옥, 2004; 정문자, 김문정, 2004). 그 뿐만 아니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아보다 여아의 우울, 불안등과 같

은 정서부적응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미, 1996). 그리고 부부갈등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Emery & O'Leary, 1982)에 반해 권영옥(1998)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지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은 성에 따라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종미, 1997; 박미연, 2000; Harris, 1992)이 있다.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공격성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고(김민정, 도현심, 2001; Maccoby & Jacklin, 1980), 여아도 남아만큼 공격적일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Parke & Slaby, 1983)에 반해 공격성에 성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Crick & Grotpeter, 1995)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동안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해왔는데 부모 중에 점차 아버지의 독자적인 영향을 인식하면서 자녀에게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에게서 분리시켜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더 많이 철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 - 자녀 관계가 어머니 - 자녀관계보다 부부갈등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Osborne & Fincham, 1996; Peterson & Zill, 1986)

또한 아버지의 학력등과 같은 사회계층에 따른 요인이 자녀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완정, 현온강과 최혜란(1997)은 자녀 양육참여도가 아동 관련 변인보다 아버지의 학력, 가족소득 등 가족 배경변인과 더욱 관련이 있고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하였고,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옥, 2003). 반면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실제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전효숙, 1990; 이행옥, 1988)가 있다. 그리고 부부갈등에 있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많고 폭력행동이 많아지고(김갑숙, 1991; 조영란, 1993),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되었으나(권영옥, 1998) 교육수준에 따라 부부갈등의 차이가 없다는 다른 보고(김혜경, 1989)도 있다.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의 차이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들 연구 결과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을 관련지은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박성연, 2002; 박혜경, 2002)에

불과하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부부갈등을 공격성과 연관 지은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부모보고에 의해 양육행동을 측정한 연구(김민정, 도현심, 2001)가 주를 이루는데 부모 자신이 보고한 양육행동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을 더 잘 예측한다(Gecas & Schwalbe, 1986; 박영애, 1995)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을 아동의 보고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의 초기 환경적 영향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부부갈등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가정의 바람직한 심리적 환경을 제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공격성에서 아동의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의 2개 초등학교 8학급의 6학년 아동 270명이다.

2005년 7월에 각 초등학교에 협조를 의뢰하여, 본 연구자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5)

		변인		빈도(%)
아버지	연령	35세 이하		7(2.9)
		36~40세		55(22.4)
		41~45세		130(53.1)
		46세 이상		53(21.6)
	학력	고졸이하		94(38.4)
		전문대졸이상		151(61.6)
아동	성별	남		130(53.1)
		여		115(46.9)

가 직접 방문하여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5명의 자료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 연령을 살펴보면, 35세 이하는 7명(2.9%), 36~40세는 55명(22.4%), 41~45세는 130명(53.1%), 46세 이상은 53명(21.6%)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2.97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38.4%, 전문대졸이상이 61.6%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총 3가지의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도구는 아동이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수정한 김문정(2004)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수용 행동, 허용·방임 행동, 거부·제재 행동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주 다르다'(1점)로부터 '아주 비슷하다'(4점)에 이르는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아버지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계수는 온정·수용 행동이 .88, 허용·방임 행동 .72, 거부·제재 행동 .83으로 각각 나타났다.

2) 부부갈등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Seid와 Fincham(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에서 추출된 3개 요인들 중 "갈등의 특성" 요인에 해당되는 19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갈등의 빈도, 강도 등 갈등의 특성 요인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특히 유해한 측면들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다(Cummings & Cummings, 1988; Grych et al., 1992).

각 문항은 '아니다'(1점)로부터 '매우 그렇다'(3점)에 이르는 3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한 형태를 띠며 해결이 잘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는 빈도가 .68, 강도가 .82로 나타났다.

3) 아동의 공격성

신체적 혹은 감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나 특정인을 향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파괴적인 행동의 정도로 Buss와 Durkee(1977)가 제작하고 노안녕(1983)이 변안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공격성(5가지 하위척도), 적의성(2가지 하위척도), 죄의식(8가지 하위척도)의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척도 중에서 물리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흥분성 등의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공격성은 총 20개 문항으로 5가지 하위척도로 구분되어진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동의 공격성의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계수는 .6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SPSS 11.0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t검증을,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온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 편차 (N=24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양육행동	온정·수용	3.12	.61
	거부·제재	1.53	.49
	허용·방임	1.87	.44
부부갈등	빈도	1.38	.43
	강도	1.45	.48
	전체	1.41	.41
공격성		2.97	.41

정·수용행동(M=3.12, SD=.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허용·방임 행동(M=1.87, SD=.44), 거부·제재 행동(M=1.53, SD=.49)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은 아버지들의 온정·수용 행동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갈등 강도(M=1.45, SD=.48)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빈도(M=1.38, SD=.43)로 나타났으며 전체 갈등(M=1.41, SD=.41)은 3점 만점에 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성을 살펴보면, 평균 2.97로 중간점수인 3점에 가깝게 나타나 공격성이 중간정도임을 알 수 있다.

1.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거부·제재 행동($t=2.23, p<.05$)에 대한 지각에서 남아와 여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여아보다 더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공격성에서는 유의미

<표 3>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N=245)

		남 아 (n=130)		여 아 (n=115)		t 값
		M	SD	M	SD	
양육행동	온정·수용	3.12	.64	3.13	.58	-.11
	허용·방임	1.86	.43	1.88	.46	-.37
	거부·제재	1.60	.51	1.46	.45	2.23*
부부갈등	빈도	1.39	.46	1.37	.41	.31
	강도	1.43	.48	1.46	.47	-.52
	전체	1.41	.42	1.42	.38	-.14
공격성		2.96	.42	2.98	.40	-.41

* $p<.05$

〈표 4〉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N=245)

		고졸이하(n=94)		전문대졸이상(n=151)		t 값
		M	SD	M	SD	
양육행동	온정·수용	2.96	.65	3.23	.56	-3.36**
	허용·방임	1.89	.46	1.86	.44	.55
	거부·제재	1.54	.50	1.53	.48	.05
부부갈등	빈도	1.45	.44	1.33	.43	2.11*
	강도	1.52	.53	1.40	.43	2.03*
	전체	1.49	.42	1.36	.39	1.33*
	공격성	3.01	.42	2.94	.40	2.39**

*p<.05 **p<.01

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온정·수용 행동은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M=3.23, SD=.56)이 고졸이하의 집단(M=2.96, SD=.65)보다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t=2.03, p<.05) 보였다. 즉 전문대졸 이상의 아버지를 둔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은 부부갈등 빈도(t=2.11, p<.05), 강도(t=2.03, p<.05), 부부갈등 전체(t=1.33, p<.05)에서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졸이하의 아버지를 둔 아동이 전문대졸 이상의 아버지를 둔 아동보다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성에서도 고졸이하 집단(M=3.01, SD=.42)이 전문대졸집단(M=2.94, SD=.40)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t=2.39, p<.01)가 있었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

1)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부부갈등 하위변인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거부·제재 양육행동에서는 부부갈등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 빈도가 많고 강도가 높을수록 온정·수용적인 행동은 덜 하고 허용·방임적이고 거부·제재적인 행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변인에서 허용·방임(r=.15, p<.05), 거부·제재(r=.26, p<.001)가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이고 거부·제재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이 아동의 공격성과 부부갈등 하위요

〈표 5〉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N=245)

양육행동	부부갈등 (빈도)	부부갈등 (강도)	부부갈등 (전체)
온정·수용	-.27***	-.34***	-.34***
허용·방임	.18**	.13*	.17**
거부·제재	.38***	.36***	.42***

*p<.05 **p<.01 ***p<.001

〈표 6〉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N=245)

양육행동	공격성
온정·수용	-.10
허용·방임	.15*
거부·제재	.26***

*p<.05 ***p<.001

〈표 7〉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N=245)

부부갈등	공격성
부부갈등(빈도)	.16*
부부갈등(강도)	.21**
부부갈등전체	.21**

* $p < .05$ ** $p < .01$

인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갈등에서 부부갈등의 빈도($r = .16, p < .05$), 부부갈등의 강도($r = .21, p < .01$), 그리고 부부갈등 전체($r = .21, p < .01$)는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고, 강도가 높고 전체 부부갈등이 더 많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배경변수인 유아의 성별 및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함께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먼저 〈표 8〉을 통하여 독립변인들간의 적률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부부갈등의 경우 빈도, 강도를 합친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5이하(1.02~1.50), TOL 0.1이상(.67~.98)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단계에서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회귀모델이 유의하지

〈표 8〉 독립변인들간의 Pearson 단순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성별								
2. 아버지의 교육수준	-.13*							
3. 온정·수용	.01	.22**						
4. 허용·방임	.02	-.04	-.01					
5. 거부·제재	-.14*	-.00	-.47***	.10				
6. 부부갈등(빈도)	-.02	-.13*	-.27***	.18**	.38***			
7. 부부갈등(강도)	.03	-.14*	-.34***	.13*	.36***	.58***		
8. 부부갈등(전체)	.01	-.15*	-.34***	.17**	.42***	.88***	.90***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N=245)

공격성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아동의 성별 ¹	.01	.02	.04	.05	.04	.05
아버지의 교육수준	-.07	-.08	-.07	-.09	-.06	-.08
온정·수용			.04	.06	.05	.08
허용·방임			.11	.12	.10	.11
거부·제재			.25	.29**	.22	.26**
부부갈등					.10	.10
상수		3.10		2.31		2.19
R ²		.01		.10		.11
F		.91		5.21***		4.68***

아동의 성별(남)=0을 기준으로 함.

** $p < .01$ *** $p < .001$

않았다. 2단계에 추가로 투입된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아버지의 거부·제재행동($\beta=.29,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일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변인들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1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부부갈등을 투입한 이후에도 2단계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던 거부·제재행동($\beta=.26, p<.01$)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었고 부부갈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변인들은 아동의 공격성 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4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여아보다 남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더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를 더 거부적이라고 지각한다고 선행연구(노경선, 심희옥, 2004; 정문자, 김문정, 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아동의 성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즉 여아에게는 친절하고 애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기를 기대하고, 남아에게는 지배적이고 경쟁적이 되기를 기대함으로써(최경숙, 2000) 아버지가 아들보다 딸을 더 온정·수용적이고 덜 거부·제재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 정도가 다르게 지각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권영옥, 1998; 정은희,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아동이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 정도가 다르게 지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공격성은 성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종미, 1997; 박미연, 2000; Harris, 1992)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본 연구의 공격성의 도구에서 직접적 공격성 뿐만 아니라 간접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했기에 전체적인 공격성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을 알아본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들(노현미, 박인진, 박영애, 1999; 김정옥, 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부갈등에서 고졸이하의 아버지를 둔 아동들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더 많이 지각했고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들(권영옥, 1998; 조영란, 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낮은 가정일수록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부부갈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배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에 접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가정을 위해 공적 차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덜 온정적이 되며 허용·방임과 거부·제재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 정도가 심할 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문자와 전연진(2005)의 연구, 그리고 부부갈등이 많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통제적이고, 덜 애정적이 되고 더 강압적이라는 강차연과 장연집(199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한 부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는데 결국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부족해지고 자녀의 요구를 귀찮게 여겨 결과적으로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선행연구(Davies & Cummings, 1994)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해서 자녀를 대할 때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이 누적되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에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에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허용·방임적 행동, 거부·제재적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아버지를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적 행동등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정문자, 김문정, 2004)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거부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결과(Bigner, 1977)와 일치한다. 특히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행함을 느끼며 위축되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쉽고 아동의 정서적인 욕구를 좌절시켜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며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란 아동은 또래 집단 속에 속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관계의 조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Baumrind, 1967; Eron, 1982).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심리적으로 거부할 경우, 아동은 더 많은 불안과 좌절을 느끼며 이러한 아동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공격적인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부갈등의 빈도나 강도가 높게 지각하는 경우 아동은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고(김민정, 도현심, 2001; 정은희, 2004),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언어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할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Forsstrom-cohen & Rosenbaum, 1985). 특히 부모의 폭력을 자주 목격한 아동들은 목격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또래관계에서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고(노치영, 1981; Davices & Cummings, 1994) 부부싸움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동은 외현화 문제 및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Jenkins & Smith, 1991)를 지지한다. 이처럼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부모는 부부갈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게서 거부적 태도나 엄격한 태도를 많이 받고 자랄 경우에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Hart et al., 1998; 김민정, 도현심, 2001; 박성연, 2002)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성연, 2002; 김귀연, 김경연, 2005)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가 애정을 주지 않고 거부할 경우, 아동은 모든 사람에게서 적대시되고 있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아동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반항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김경희, 2000)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동을 자율적, 애정적으로 대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특성인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부부

관계와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관한 내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식의 변화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학생들로 한정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Maccoby & Jacklin, 1980) 추후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기보고 방법을 통해 각 변인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주는 정보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보고와 아동 보고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원인을 추정해가거나 질문지법만이 아닌 자연관찰이나 행동관찰 같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공격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 변인 이외에 학교생활에서 또 다른 변인과 개인변인들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공격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부모 역할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강차연, 장연집(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경인일보, 2006. 6. 20일자.
 권영옥(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2000). 부모의 훈육 방식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연, 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정옥(2003).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미(1997).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분석. *한국초등교육연구*, 11, 71-89.
- 김혜경(1989).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경선, 심희옥(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 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 노안녕(1983). 비행 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 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 박인전, 박영애(1999). 유아 및 가족배경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4(2), 191-215.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1), 29-43.
-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성연, 고은주(2004).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23-35.
- 박영미(199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부적응 행동과의 상관.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기현(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06. 5. 3일자.
-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래(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부모, 아동의 특성 및 가정환경 변인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복(199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정, 현온강, 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인지도가 아버지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1), 155-168.
- 이정숙(199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성향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행옥(1998).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숙(1990). 유치원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문자, 전연진(2005).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3(2), 41-55
- 정원식(1975).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은희(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준미(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 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란(1993).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2000). *발달심리학*. 아동청소년기. 서울: 교문사.
- Anderson, S. A., Russell, C. S., & Schumm, W. R.

-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27-13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igner, J. J.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98-106.
- Buss, A. H., & Durkee, A. (197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13-349.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Cummings, E. M.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 Cummings, E. M., & Cummings, J. S. (1988).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3, 296-321.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Eron, L. D. (1980). Prescription for reduction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5, 244-252.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27, 197-211.
- E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Fincham, F. D.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3-127.
- Forsstrom-cohen, B., & Rosenbaum, A. (1985). The effects of parental marital violence on young adult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 467-472.
- Framo, J. L. (1975). Personal reflections of a therapis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ling*, 1, 15-28.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K.,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Harris, N. B. (1992). Sex, race, and the experience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201-217.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793-810.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675-692.
- Katz, L. F., & Gottman, J. M. (1993).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redic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40-950.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cCord, J. (1988). Parental behavior in the cycle of aggression. *Psychiatry*, 51, 14-23.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Osborne, L. N., & Fincham, F. D.(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1), 48-75.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 4.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processes*, 547-642. New York: Wiley.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Children: The unintended victims of marital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92-699.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NJ: LEA, pp. 255-284.
- Tremblay, R.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141.
- Wolfe, D. A. (1985). Child abusive parents. An empirical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7, 462-482.

(2007년 3월 31일 접수, 2007년 5월 28일 채택)